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거운 몸을 이 끌고 승강기에 오른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힌 후 승강기가 올라가는 순간, 덜컹! 갑자기 승강기가 멈추고 만다. 동시에 꺼지는 불. 비상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 1평 남짓한 좁은 공간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찬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119 구조대의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구조 현황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사고 건수는 7천7백34건에 1만7천34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승강기 문이 닫혀 갇히는 사고 가장 많아

인명 사고도 1백37건에 1백61명으로 사망 26명, 부상 1백35명에 이른다.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한 인원의 10% 정도가 승강기 관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 내리는 승강기의 안전 실태는 이처럼 심각한 상태다.

사례 ①

7살 된 남자 아이가 한 쪽 끝이 매듭으로 된 밧줄을 목에 감고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에 올라 탔다. 1층에서 9층으로 올라 가던 중 목에 감긴 밧줄의 매듭이 1층 승강장에 걸려 목을 졸라 아이가 사망했다. 승강기는 5층에 정지했다.

사례 ②

할머니와 손자가 승강기에 올라 타는 순간 제동기의 마모로 인해 출입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올라갔다. 승강기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두 사람은 몸의 중심을 잃고 승강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안전 정보

승강기

보수·점검 부실로 사고 잦은 안전 사각지대

승강기의 안전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19 구조대에서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승강기 관련 사고 건수는 무려 7천7백34건.

허술한 보수·점검과 이용자·보수자의 안전 의식 부족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로 인한 사고의 유형과 안전 실태를 알아본다.

- 조사/박정용(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 정리/임은정(소비자정보국)

사례 ③

2명의 남자가 7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8층을 통과할 때 지시등(인디케이터)이 작동되지 않아 1층으로 자동 복귀했는데 1층에 정지하지 못해 완충기에 충돌하면서 부상을 입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한 승강기 관련 사고 7천7백34건을 분석해보면 간힘(문잠김)이 95.9%로 가장 많았고 추락이 0.7%, 기타 3.4%순이었다.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는 유지 관리 부실이 56.5%, 이용자 과실 28.3%, 작업자 과실 10.9%, 제조 불량은 4.3%였다.

편의주의, 적당주의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안전 검사와 승강기 이용자·보수업체의 안전 의식 부족이 주된 사고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사고가 난 후에도 사고 승강기의 30% 정도만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70%는 승강기 관련 안전 기관의 원인 조사와 정밀 점검없이 자체 점검만 거쳐 바로 재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고 더 큰 인명 피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전국 대도시 60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각 1대씩 총 60대를 대상으로 승강기의 유지·보수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책임유지보수 계약 전무** - 선진국에서는 이미 승강기의 전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책임유지보수(Full Maintenance) 계약이 보편화 돼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 조사 대상인 60개 아파트단지 전체가 소모부품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단순유지보수(Part Oil Grease)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 **보수 계약의 사고 책임이 불분명** - 대부분의 보수 계약이 인명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보수업체에서 책임지는 일이 거의 없도록 되어 있다. 거의 모든 보수 계약 내용에 보수업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수 품질 수준, 보수 품질 미준수시 보상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 **승강기 비상 열쇠의 보관 상태가 허술** - 전체의 28.3%에 이르는 17개 단지에서 승강기 비상 열쇠를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어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비실 직원이 승강기 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경우 올바른 응급 조치가 행해질 수 없고 오히려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승강기 비상 연락 장치(인터폰) 무응답** - 28.3%인 17대의 승강기에서 인터폰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23.3%에 해당하는 14개 단지만이 경비실과 외부 2곳에서 동시에 응답할 수 있는 이중 응답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터폰 호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승강기 안에 갇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없다.

▶ **범죄 방지 장치 설치 저조** - 승강기의 안과 밖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창인 방범창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승강기 내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최근에 지어진 4개 단지 6.7%로 극히 소수의 단지만 범죄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 때문인지 아파트 단지의 주민 대다수가 승강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승강기 이용자중 승강기가 안전하다고 답한 사람은 26.7%에 불과했고 불안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주로 사고와 잦은 고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1년간 고장이나 사고를 경험

한 사람은 무려 52.7%에 달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행중 층간 정지(26.6%), 승강기 안에 갇힘(17.2%) 버튼을 누른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정지(13.5%), 타고 내릴 때 문의 개폐 불량(7.3%), 승강기에 몸이 끼어 다칠뻔함(6.2%), 수평 불량(4.0%) 등이었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2.7%가 승강기 안전 사고 경험

고장·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수·점검 불량(46.7%), 제품 자체 결함(24.9%), 제품 노후(9.9%), 아이들 장난(7.5%), 이용자 부주의(6.7%) 등을 꼽았다.

승강기의 보수·점검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보수·점검을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보수업체의 기술력 미흡(35.3%), 관리사무소의 무관심(33.1%), 보수업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덤핑(16.5%), 주민들의 무관심(4.3%), 보수업체 안전 의식 결여(3.2%)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승강기 안전 사고를 줄이려면 일단 보수·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수의 품질을 높이고 보수 책임과 의무를 문서화하여 합리적인 보수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정밀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인터폰 호출이나 범죄 방지 장치 등도 하루 빨리 보완되어야 할 문제다.

승강기 사고는 이용자의 부주의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승강기의 올바른 이용과 비상 대처 방법 등의 홍보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특히 사고가 잦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하다.◎